나의 외국 생활: 문화와 언어

후안 프란체스코

내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 쉽지는 않겠지만 먼저 그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언어를 정복하기 이전에 낯선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는 일과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지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게 필요하다. 낯선 외국어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픈 욕구 역시 반드시 분명한 목표가 동반돼야 한다.

외국어 하나 배우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를 성취함으로써 나의 지평을 넓힐 수 있고,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흔히 낯선 외국어를 처음 배우면서 부딪히는 어려움 때문에 미리 자포자기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목표가 없고 동기부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라는 결과를 당연히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그곳의 생활양식과 문화, 역사, 종교 등을 배우기 위해 계획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의 외국 생활은 수년 전 내가 한국에 도착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내가 공부하기 위해 해외로 그것도 아시아 지역으로 나가고픈 마음은 비록 오래되었지만,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유학의 기회가 주어지면서 비로소 현실이 되었다. 그때 나는 한국에 반드시 가고야 말겠다는 강한 집념으로

선발시험을 보고 다행히 시험이 통과되어 우선은 한국어 공부를 마치고 나중에 나의 전공과 종교학을 이수했다.

외국어를 배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나는 처음에 집에서 개인교습을 받기로 했다. 그래서 한 여선생이 1주에 두 번 두 시간씩 한국어를 가르쳐주었다. 그 선생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최고의 선생이었으며 지금은 한국에서 사귄 가장 좋은 친구 중 하나가 됐다. 정말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 한국어가 어렵긴 하지만, 조금 조금씩 일상생활을 해나갈 정도는 습득할 수 있게 됐다.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선 수업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에 일정 기간 머물 계획이 있는 사람이면 개인교습이든 그룹으로 공부하든 꼭 나의 경험을 추천하고 싶다. 물론 떠나기 전에 드라마나 프로그램이나 영화 등을 통해 보고 들으면서 준비하는 게 좋지만, 한국의 좋은 음악들을 듣는 것도 아주 유익하다.

그 뒤에 나는 예수회 계통의 서강대학교에 들어갔다. 2년간은 한국어 교육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한국어 실력을 탄탄히 다져갔다. 그 경험은 아주 유효했다. 한국어학당 연수를 마치고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광주가톨릭대학교에 들어가서 대다수가 한국어로 된 많은 자료를 공부했다. 이 기간이 내가 학생 신분으로 있는 동안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때였다. 하지만 그 노력과 희생은 마침내 좋은 결실로 내게 돌아왔다.

다른 한편, 해외에 나가서 산다는 생각은 하루 밤 사이에 결정할 일이 아니다. 가족과 친구와 떨어져 말도 다르고 또한 정복되기도 힘든 언어와 씨름하는 곳에서 지내야 하는 고통스런 삶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일이 불안하고 불투명할지라도 이러한 경험은 아주 값지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이러한 경험이 개인적인 관계나, 문화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환경을 잘 헤쳐 나갈 수 있게 해주었다.

상대방 언어를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문화를 상호 문화적 소통을 통해 가능케 해준다. 배운 외국어를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를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Sprachspiel)은 의미 혹은 행동의 이해를 위한 소통의 맥락을 제공한다. 결국, 외국어 습득은 문법의 이해가 아닌 그 나라의 '문화', 나아가 그의 '규칙(언어게임)'을 배우는 것이 아닐까?

나눈 지 몇 달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곳만의 고유문화와 행동방식, 곧 미묘하고 섬세한 언어습관과 예의범절을 포함하여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만일 심리학에 관심이 있고 어느 민족문화의 이질적인 특성을 배우고자 한다면, 그곳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개인의 언어행위를 통해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윤리 종교적인 면의 표현방식과 개념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최근 한국에 살면서 언어와 문화에 관한 여러 가지 의미 깊은 경험을 했다. 일례로, 한국어에서 많이 쓰이는 '우리'라는 단어는 본래 '우리의', '우리들의'를 뜻하는데, 한국인들은 이를 공동체, 전체를 함축하는 뜻으로 쓰는 반면, 우리 서양 사람들은 보다 개인주의적인 의미로 '나의'라고 쓴다. 이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생각할 때나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공동체를 중시하며, '나의 집'을 '우리 집'

이라고 하는 거 외에도 그런 예가 많이 나타난다.

한국문화와 생활양식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술 마시거나 밥 먹을 때다. 한국 사람들은 술 마실 때 주도라는 게 있어서, 술을 들 땐 상대방과 함께 나누는 법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술잔을 드는 사람은 잔을 비운 뒤 그 잔에 다시 마시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잔을 따라 준다. 나이 든 어른하고 술을 함께 나눌 때에는 잔을 받아서 한쪽으로 얼굴을 약간 돌린 뒤에 잔을 듦으로써 어른에 대한 예의를 보인다.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의 보나 나은 이해를 위해 터득해야 할 습관도 아직 많다. 외국어를 배우면서, 새롭게 배우는 단어들을 가지고 이미 익힌 다른 단어들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드는 훈련도 중요하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뇌작용이 활발해져 말도 더 잘하게 된다. 단어와 단어는 뇌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즉흥적으로 더 복잡한 문장도 매우 쉽게 만들어내는 걸 깨닫게 될 것이며, 새로 습득한 제2의 언어가 또 다른 표현방식의 세계로 초대해주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외국어를 배우면서 함께 경험하는 문화체험 덕분에 갓 이중언어 사용자가 된 사람조차 한 세계를 두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게 어쩜 당연하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생소한 문화 속에서 생소한 활동에 참가하면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또 하나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와 다른 삶의 모습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가운데 하나다. 새로운 언어와 문화의 습득은 결코 시한적이 아닌 일생에 남는 것이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나가는 것이다.

[신찬용 옮김]

후안 프란시스코 이바라 – 가톨릭 선교사 및 스페인어 교수
신찬용 – 평택대학교 평택세계화연구원